

카를로 스카르파 미술관 건축에 있어서의 컨버전디자인 수법과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Conversion Design Methods by Carlo Scarpa's Museum Architecture

김소진* / Kim, So-Zin
박찬일** / Park, Chan-Il

Abstract

Museum Architecture, passing through modern times, have been requested to make changes in order to respond to the necessities of current times as well, so that they come to develop various kinds of programs other than a mere exhibition. That is, museum began recognizing the diversity of activities available in the spaces and the openness to the public. And tried to keep up with the changes by linking the museum buildings with local community in urban architecture as a result. Conversion design is methodology aims at reforming old buildings into a museum or revitalizing buildings of historical significance into exhibition center, so that it made possible to utilize the texts of historical, cultural cities, which in turn contribute to the diversity of urban architecture and protection of buildings in environmental crisis. In the sense, the paper analyzes the life-long contribution and dedication of Carlo Scarpa, an Italian architect, in the conversion of museum architecture, and studies the style, techniques, and features witnessed from his architectural works, and finally offers an insight and a directing post to take advantage of diverse ways likely applicable in our urban architectures. Scarpa's features in his museum architecture are classified as follows: First, contrasting expression of reiteration and side by side to express the continuity of time Second, he conveyed implicated meanings through inserting contracted factors of the locality and traditionality. Third, his interest in formative works and handicraft had an influence on shaping conversion space Finally, expression of accidentally to change of a point of view.

키워드 : 컨버전디자인, 카를로 스카르파, 미술관 건축

Keywords : Conversion Design, Carlo Scarpa, Museum Architectur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의 미술관 건축은 역사의 변천과 이데올로기의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종래의 수집 보존의 역할과 더불어 과거 일부 특수층에만 허용되었던 특수공간이 아닌 지역시민 모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의 활용, 문화중심체로서의 미술관 프로그램의 다양화, 주변의 역사적 맥락과 함께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의미가 변화되어졌다. 즉,

미술관 건축이 문화도시를 구성하는 필수적 공공건축물로서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¹⁾ 이러한 미술관 건축의 의미변화와 함께 최근 도시의 역사와 결부되는 장소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주목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존 건축물의 미술관으로의 재활용이라 할 수 있다. 건축의 재생은 기존건축물에 대한 유지 및 보존활용을 통해 에너지와 자원의 문제, 그리고 생태환경에 관한 문제 등 현시대 건축물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축방법론이다 이런 재생건축에 의한 미술관 건축은 환경의 보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축의 지속

*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실내건축설계학과, 석사

** 이사,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실내건축설계학과, 부교수

1)이연경, 새로운 세기, 새로운 미술관, 월간건축문화, No. 86, 2005. 07

가능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는 측면과 동시대의 문화가 집약되어 표현되어진 대표적인 건축물을 보존한다는 역사적 가치의 측면, 역사적 가치는 없지만 특정 시대 상황이나 역사적 사건, 혹은 특정인물과의 관련 등으로 특별한 장소성을 갖게 되는 사회적인 측면, 과거의 다양한 흔적과 시간성을 보존하고 있는 건축물을 미술관으로 이용하므로 보다 효과적인 전시연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 등이 신축의 미술관에 비해 여러 가지 공간적 제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생건축에 의한 미술관 건축이 주목받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건물의 전용을 통한 미술관 건축은 서양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있는 건축 방법론으로 최근 우리의 도심에서도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의 변화를 위해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장소적 의미를 상실한 건축물을 문화공간으로 전용하여 재생하고자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재생건축과 미술관은 여러 복합적인 상황과 조건들 사이에서 과거를 통해 미래를 본다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공통분모가 두 분야의 만남을 통해 상호간의 목적을 강조하고 효과를 증진시켜 우리의 도시가 문화, 역사의 도시로 나아가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도심에는 장소적 의미를 이미 상실해 버렸지만 시대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건축물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 건축물들의 사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시점에서 우리보다 앞서 고민을 시작한 외국의 선진사례를 연구해 봄으로써 우리의 현실에 맞는 다양한 재생수법의 가능성을 탐구해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은 건축물의 다양한 재생 방법 중 용도전환의 수법인 컨버전디자인에 중점을 둔 연구이며 연구의 대상으로는 오래전부터 건축물의 재생과 재활용에 대한 건축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온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건축가 카를로 스카르파의 미술관 건축을 그 대상으로 한다. 카를로 스카르파의 전반적인 건축 작품은 복원, 개축, 증축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특히 과거의 유적을 현대적 시각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에서 주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작가로서 현대와 과거의 요소들을 조화시키는 디자인적 연출에 있어 독자적인 방법론을 구축한 건축가라 할 수 있다. 또한 전시계획에 있어서도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건축물을 미술관으로 전용한 사례에 있어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남겼다.

본 논문에서는 스카르파가 설계한 건축물 중 미술관으로 용도전환 되어진 재생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여 그의 건축적 사상이 컨버전디자인의 관점에서 어떠한 디자인적 접근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는지를 사례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그 결과 얻어진 컨버전디자인 방법들의 표현특성을 도출해 내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한다.

2장에서는 컨버전디자인의 일반적 개념과 현대도시에서의 미술관 건축의 의미변화와 함께 미술관 건축에서의 컨버전 디자인 적용의 의미를 설명하며, 더 나아가 컨버전디자인과 카를로 스카르파의 미술관 건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스카르파의 미술관 건축을 대상으로 하는 컨버전디자인의 수법과 표현특성을 도출하는 의미를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스카르파의 건축사상을 컨버전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스카르파가 건축물을 컨버전함에 있어 사용한 구체적인 디자인 방법들을 분류, 정리한다. 정리한 방법들을 유형화하여 각각의 유형을 구성하는 디자인 방법들로 재분류하여 카를로 스카르파 미술관 건축에서 보여 지는 컨버전디자인 방법의 표현특성을 도출하였다.

4장에서는 카를로 스카르파 미술관 건축의 분석을 통하여 추출한 컨버전디자인 방법들에 대한 분석과 고찰을 통하여 컨버전 디자인의 구체적인 수법과 그에 따른 표현특성을 제시 하였다.

2. 컨버전디자인과 카를로 스카르파 미술관 건축의 의미

2.1. 컨버전디자인의 개념과 미술관 건축에의 적용 및 그 의미

최근 근대건축에서 간과하였던 역사성과 장소성을 중시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미술관 등의 공공건축을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와 연계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공건축을 지역성이나 역사성과 연계시킴으로써 건축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자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건축의 의미변화에 주목되어지고 있는 것이 건축의 지속가능한 방법론 중 하나인 컨버전디자인이다. 컨버전디자인은 용도변경을 동반하는 전용(轉用)을 행하는 건축디자인 수법이다. 여기서의 용도변경은 현행 국내법상의 ‘평면상의 벽면구획의 변경’을 의미하는 단순용도변경의 개념²⁾과는 그 본질을 달리한다. 수도대학동경(일본)의 코이즈미 마사오 교수는 “컨버전은 기존의 건물이라는 주어진 조건을 살리며 그 위에 새로운 공간을 계획하는 것이므로 여기서의 기존의 건물은 인공의 지형과 같다고 할 수 있다”³⁾라고 컨버전디자인이 갖는 건축적 창조성을 설명하고 있다. 즉, 컨버전 디자인이란 기존의 건물이 갖는 다양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의 특성을 현대적인 관점으로 재발견, 재해석하여 새로운 건축적 가치를 창출하는 작업이라고 그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2)이재인, 건축물 분류에 관한 연구, 홍대석론, 2001, p.92

3)小泉雅生, コンバージョンデザインの可能性, Space Design, 鹿島出版會, 2005, p.85

이러한 컨버전디자인의 개념을 기존의 역사적 건축물에 적용하여 미술관으로 재생시키는 작업은 미술관 건축을 역사적 문화 도시의 텍스트로 활용하여 역사적 의미를 갖는 장소적 특성을 부여함으로써 도시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한다. 즉 미래지향적 도심의 환경 속에서 과거의 기억을 담고 있는 건축을 유지하여 사용함으로써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새로운 장소성을 구축하여 다양한 텍스트를 보유하는 건축경관을 형성시키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또한 미술관 건축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흔적들을 보존, 전시하거나 현재의 문화적 상황, 미래의 문화적 예측을 공간에 담아내는 장소적 의미가 큰 건축물이므로 역사적 건축물의 재생을 통하여 건축이 갖는 과거의 사회, 문화적 가치를 유지함으로써 얻어지는 장소성의 가치는 미술관 건축의 건축적 특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의미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과거의 흔적을 담은 건축물을 귀중한 유물의 보존이나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함으로써 신축의 미술관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새로운 전시연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미술관 건축에 컨버전디자인을 적용하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2. 까를로 스카르파 미술관 건축의 특성과 컨버전디자인

까를로 스카르파의 건축 활동을 살펴보면 작품 활동의 전체 55년간의 기간 동안 총 249건의 건축 작품을 남겼다. 실현 빈도를 살펴보면 실현된 작품 중에 인테리어, 배치(layout), 설치(installation), 가구(furnishing)작업을 포함하는 복원작업(restoration)의 비율은 약76%이다. 복원작업의 약 57%가 대부분 전시계획(installation of exhibition) 작업이고 약 36%가 주거와 상업시설의 인테리어가 주가 되는 복원작업이라 할 수 있다.⁴⁾ 결과적으로 스카르파는 건축물의 신축보다는 기존의 건축물의 보존, 개축, 증축, 용도변경 등을 통해 그의 건축사상을 정립하고 그의 특성이 더욱 부각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스카르파의 건축 활동 전반이 복원작업이었고 그의 대표적인 작품들은 컨버전디자인을 통한 미술관 건축, 기념비적 공간, 전시계획 등 이었고 전시공간의 설계에 있어 건축가 자신의 독자적 표현특성을 창출하였던 건축가였다. 이러한 점이 스카르파의 건축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것에 타당성을 부여해준다. 컨버전으로 용도가 전환되어진 건물이 가치와 의미를 가지며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건축물을 대하는 건축가의 태도에서 일차적으로 결정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건축물을 어떠한 태도로 재생시킬 것인가는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스카르파의 경우 그의 전통과 역사에 관한 관심과 이해하려는 태도는 그의 수많은 스

케치와 설계과정 등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으며 그의 작품집에 실린 작품들을 통해서도 그러한 그의 설계의도와 생각들이 전달되어 우리에게 감명을 주고 있다.

미술관 건축의 다양한 존재적 가치 중 주목해야하는 것은 미술관 건축이 공간을 초월한 인간의 문화적 행위를 담아내는 공간이라는 점이고 컨버전을 통해 재탄생한 미술관 건축물은 과거와 현재의 모습에서 미래의 도시적 풍경을 예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역사·문화적 도시로 나아가려고 준비하는 우리의 도시 상황에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축 방법론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우리의 도시적 상황에서 이러한 역사적 건축물의 미술관으로의 전용사례와 그 구체적인 디자인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아직은 경험이 많지 않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진다.

3. 까를로 스카르파 미술관 건축의 분석을 통한 컨버전디자인 수법과 특성의 유형화

본 논문의 사례선정의 기준은 연구대상인 까를로 스카르파의 건축물 중 컨버전디자인 방법론을 통해 미술관으로 용도 전환 되어진 4개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표 1> 이 건축물들이 설계되어진 시기는 스카르파의 건축사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1950-1970년대까지의 이탈리아에 실제 실현된 스카르파 건축의 대표적인 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

분석의 방법은 각각의 사례를 대상으로 컨버전디자인의 방법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분석한 디자인 방법들을 유사한 성격의 방법들로 재정리하여 유형화하므로 컨버전디자인 요소를 추출한다. 컨버전디자인 방법은 스카르파의 건축사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그의 건축적 사상이 컨버전 공간에서 어떠한 수법을 통해 표현되어졌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구체적인 수법과 표현 특성을 통해 밝혀내기로 한다. 분석은 작품집, 문헌, 잡지 등을 통하여 작품들의 해설 및 작품설명에 나타나는 방법들과 제시되어진 사진과 도면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정리하였다.

<표 1> 작품 리스트

작품명	구-용도	현-용도	준공년	위치
아바테리스궁 (Palazzo Abatellis)	궁	전시관	1953-1954	Palermo
카스텔 베끼오 (Museo Castelvecchio)	궁 ▶ 군 막사	박물관	1956-73	Verona
올리베티 소름 (Negozio Olivetti)	상점	전시관	1957-58	Venezia
스탬팔리아재단 (Fondazione Querini Stampalia)	궁	전시관	1961-63	Venezia

3.1. 까를로 스카르파 미술관 건축의 분석

(1) 아바테리스 궁(Palazzo Abatellis, 1953-54, Palermo)

마리오 까르멜리바리(M. Carmelivan)가 디자인한 14세기의

4) 김태중, 까를로 스카르파 건축에 나타난 디테일의 유형과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2000, p.11

건물을 복원하여 시칠리아 국립미술관으로 개조시키는 작업으로써 스카르파는 개조작업에 있어 기존의 구성요소였던 내부 중정을 감싸고 있는 아케이드를 원형으로 복구하면서 '궁'의 역사적 가치에 의미를 부여한다. 동시에 복원되어진 아케이드 형태는 기존 개구부의 고전적 형태와 개구부 안쪽으로 설치되어진 새로운 창 형태의 중첩된 개구부와 병치되어져 과거와 현재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입면 상에서 연출한다. 복원되어진 아케이드 공간에는 이층으로 올라가는 외부계단을 설치, 아케이드를 거쳐 다음 전시공간으로 이동하는 동선의 설계, 내부 중정과외부의 연계를 통해서 기존의 공간보다 적극적인 공간으로 변화하게 된다.<그림 1>



<그림 1> 중정->복원된 아케이드를 바라봄
<그림 2> 내부에서 외부를 바라봄
<그림 3> 내, 외부가 교차 되는 순회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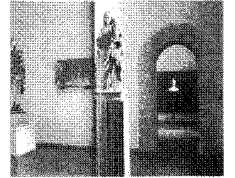
스카르파는 기존 중정공간을 내부전시공간과 연계하여 전시 영역으로의 변화를 피하여 보다 활성화되어진 공간으로 연출하려 한다. 스카르파는 모퉁이 공간을 뚫어서 내부전시공간을 의도적으로 개방시킨다. 공간의 확장과 연속을 피하는 동시에 내부와 외부의 공간이 교차하는 지점에 조각상을 배치함으로써 관람자는 내부에서 보여 지는 전시물의 모습과 외부에서 보여 공간의 경계가 모호함을 느끼게 된다.⁵⁾ 결국 스카르파는 중정을 단순히 건물로 둘러싸여진 한정된 의미의 공간이 아니라, 내, 외부 시선의 교차와 빛의 유입, 동선의 연결을 통해 오히려 내부공간보다 더 다양한 행위의 공간으로 그 의미를 역전시키고 있다.<그림 2> 중정의 교차하는 대각선으로 도입된 바닥의 패턴은 자연스럽게 동선을 중정으로 유도하고 있고 중정에서는 건축물을 배경으로 외부 전시물을 감상하게 된다. 스카르파는 아바테리시 궁의 순회동선에 있어서 전시를 감상하고자 하는 관람자가 내부와 외부를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전체 전시공간이 순회가 되는 비기능적 동선을 설계한다. 이는 전시물만을 관람하는 것이 아닌 현시대에는 볼 수 없는 과거의 유물 자체인 건축물 자체를 전시물로 보려했던 또 관람객이 그러하기를 원했던 스카르파의 생각이 동선체계에 반영되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그림 3>

내부공간의 변화에 있어서 기존의 천정의 목구조조를 의도적으로 노출시킴과 동시에 벽면은 새롭게 플라스터 미장 바름하고 바닥면 또한 새롭게 페이빙을 함으로써 예전의 구조와 새롭게 덧붙여진 현재의 외피사이에 존재하는 겹쳐진 레이어를 통해 관람자로 하여금 세월의 흔적을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

도록 하여준다.<그림 4> 또한 스카르파는 기존의 벽면에 바로 전시물을 배치시키는 것이 아닌 기존 벽면 앞에 벽보다 낮은 원색의 전시벽면을 설치하여 이중벽면을 형성시킨 후 전시물을 배치함으로써 기존벽면과 전시벽면의 질감과 색채의 차이를 통해 전시물을 부각시키는데 이는 전시벽과 전시물만을 위해 고안한 전시대, 전시물의 배치를 통해 시선을 유도하며 백색의 조형물을 돋보이게 하는 효과를 가져 오며 더불어 공간의 생동감을 불어넣어주는 효과를 얻고 있다.<그림 5>



<그림 4> 기존의 목구조로 노출되어진 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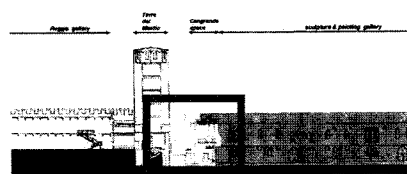


<그림 5> 새로 마감되어진 전시벽, 전시대의 조화를 통한 전시의 연출

스카르파는 아바테리시 궁의 박물관으로의 전용에 있어 기존 공간을 적극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평면의 승계와 구조를 보존한 채 외장 벽의 변화를 통해 공간을 변화시켰다. '궁'이라는 건축물이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전시공간으로 변형이 용이한 평면과 높은 층고는 큰 변화 없이 공간을 미술관으로의 변형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스카르파가 아바테리시 궁에서 중점을 두었던 것은 동선의 체계로 끊임없이 외부와의 관계를 설정하고자 하는 스카르파의 의도를 동선의 의도적인 설정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고 전시물 뿐 아니라 건축물 자체를 감상하게끔 하려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2) 카스텔베기오 뮤지엄(Museum Castelvecchio/ 1956-64, Verona)

스카르파는 중세시기부터 지금까지의 역사적 흔적을 서로 다른 역사적 시기를 보여주는 단편들을 나열함으로써 역사를 살아있게끔 만드는 역사적 투명성에 관심을 두고 작업을 진행한다. 카스텔베기오 뮤지엄의 대표적인 공간인 깐그란데 조각상부분은 복원하는 시기에 형성되어진 공간으로 완공시기와 전시물의 성격(회화와 조각전시), 복원규모가 다른 두 개의 건물의 연계성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스카르파는 다른 두 개의 특징적인 전시동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아닌 조각상 전시실의 내부공간을 외부공간으로 부분치환 시킴으로서 둘을 격리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비워진 공간에는 원래 입구에 설치하여 상징적 의미를 두기로 하였던 깐그란데 조각상을 배치하고 서로 시기가 다른 구조와 형태, 재료의 층들을 배열하여 건축물의 역사를 드러내 주는 언어으로써 복합적 기능을 수



<그림 6> 시기가 다른 두 건물의 연결을 위한 공간적 통합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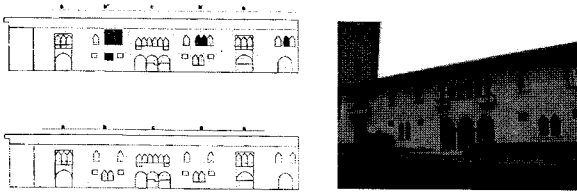


<그림 7> 완성된 깐그란데 공간

5)장정현, 카를로 스카르파 건축의 주제와 표현방식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론, 1996, p.51

행하도록 한다. 비지시적인 다양한 방향성과 동선의 선택 가능성, 바닥 부분에 전개되는 여러 패턴과 레벨의 변화는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과 행위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이벤트적 성격을 보여주고 이는 두 건물을 눈에 보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통합을 보여준다.<그림 6, 7>

정원을 마주하는 외부 파사드 입면의 경우 19세기 막사의 파사드가 1923년 박물관으로 개조되던 때에 재구축된 것으로 이 입면 파사드의 부분적 변화를 통해 신·구의 조화를 이루어나간다. 먼저 파사드의 대칭적 입면구성을 개구부의 위치변화, 생성 등을 통해 비대칭적 입면으로 변화시키고 전체 벽면을 콘크리트 뿔칠로 미장 바름을 하는데 미장 바름한 입면 부분을 직사각형으로 잘라냄으로써 기존구조의 재료를 의도적으로 드러낸다. 결과적으로 고딕 창 배열과 의도적으로 드러낸 구조의 단편들은 플라주처럼 입면을 구성하며 정원에 배열되어진 고딕 유물들에 대한 배경 막의 역할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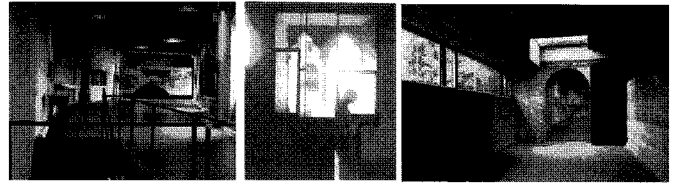
a) 파사드 입면의 변화과정
아래: 대칭적 입면구성 ->
위: 비대칭적 구성으로의 변화

b) 변경되어진 입면 파사드의 모습

<그림 8> 파사드 입면의 변화과정과 현재의 파사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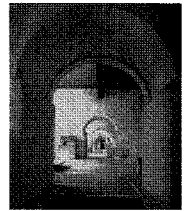
스까르파의 부분을 덜어내거나 덧붙이는 작업은 내부공간의 형성에서 적극적으로 보여 지는데, 스까르파는 내부 벽면의 미장바름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미장 바름을 하지 않고 천정가까이의 벽면은 기존의 벽돌 면을 의도적으로 남겨 놓는다. 또한 기존 천정면의 목구조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벽과 바닥은 새로운 재료로 마감함으로써 기존공간의 흔적을 새로 형성되어지는 공간의 한 부분을 형성하게끔 유도한다.<그림 9> 내부공간의 이중창은 스까르파 공간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로 베네치아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이중벽면의 모습을 스까르파는 컨버전 공간에서 기존공간의 고딕창의 외부벽면과 안쪽으로 몬드리안(P. Mondrian)의 조형 형태를 중첩시켜 전시공간으로의 빛의 유입과 함께 신·구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 준다. 스까르파의 신·구의 중첩된 상황의 표현은 새로 삼입되어지는 원색의 낮은 전시 벽과 벽면의 중첩적 상황에서도 보여 지는데 아바테리스 궁에서 보여주었던 이중 전시벽을 통해 전시물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킴과 동시에 강렬한 색상을 통해 시선을 유도하며, 무채색의 공간에 활력을 느끼게 해준다.<그림 10> 스까르파는 신·구의 중첩의 방법 이외에 기존아취형태와 근대적 조형어휘의 격자형 철제문을 병치시킴으로써 기존 공간에 근대적 조형어휘를 자연스럽게 병치시켜 새로운 공간을 연출한다. 격자형 형태의 문은 형태적 대비를 통한

공간의 변화뿐 아니라 외부의 자연광을 자연스럽게 내부로 유입시켜 외부환경의 모습을 내부로 끌어드리는 기능적인 역할하게 된다. 또한 스까르파 특유의 수공예적 감각으로 형성된 문은 조형적인 공간이미지를 만드는데 큰 일조를 한다.<그림 11>



<그림 9> 노출된 기존 천정 <그림 10> 중첩된 신·구의 형태 <그림 11> 기존 아취와 근대 조형의 병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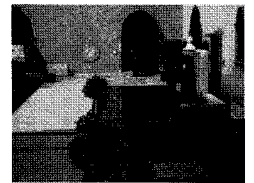
내부 전시 공간 구성에 있어 기존의 불필요했던 장식을 제거하고 기본적인 구조만을 남긴 스까르파는 연속되는 다섯 개의 내부 공간을 축으로 이어지는 강철 빔으로 공간의 연계성을 부여하며 구조를 보강하고 각 실 아치의 개구부에는 분홍 프룬 석재 슬라브를 피복시킴으로써 반복되는 리듬감을 강조하며 원근감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킨다.⁶⁾



<그림 12> 원근감이 느껴지는 내부 전시 공간

바닥과 벽은 분리시켜 바닥이 떠있는 듯한 형상을 보여주고 재료의 재질감과 광택의 차이를 통한 페이빙의 조합을 통해 물성을 초월한 재료의 사용을 보여준다.<그림 12>

건물 입구에 형성된 수공간은 지역적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지만 표현의 의미는 그렇지 않다. 카스텔베끼오 뮤지엄의 경우 이태리 정원에 표현되어지는 동적인 수공간이 아닌 정적인 이미지의 수공간으로 표현되어져 공간에서 건축의 인공적 본성에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위치가 변화된 입구로의 동선유도의 기능적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그림 13>



<그림 13> 정원의 수공간

카스텔베끼오 뮤지엄은 기존공간에 존재하던 오래된 흔적들이 시간의 질서 속에 나열되어 스까르파의 불완전한 완성을 통해 시간의 연속성을 표현하였다. 스까르파는 카스텔베끼오 뮤지엄을 시간에 얽매이지 않은 공간으로 표현되기를 원하였고 그의 생각은 칸그란데 조각상의 중성적 공간의 형성이나 과거의 구조체를 보존하며 그 위에 현대를 의미를 재료, 및 형태를 삼입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적절히 조화시킴을 통해 표현되어졌고 그러하기에 카스텔베끼오 뮤지엄이 근대의 컨버전 건축물 중에 신·구의 조화가 완벽하다는 평을 받는다고 생각되어진다.

(3) 올리베티 쇼룸(NegoziO Olivetti, 1957-58, Venezia)

올리베티 쇼룸은 올리베티(타자기회사) 쇼윈도 정면 개축작품

6)김정훈, 카를로 스까르파의 카스텔베끼오 미술관에 나타난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론, 1998, p.80

으로 원형의 아취가 마가의 광장을 향해 놓여 있는 공간으로 올리베띠의 전시실 계획안이다. 외부의 기존건물의 원형아취가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쇼룸내의 공간 구성은 근대적 조형 언어로 표현되어 신·구의 형태적 대비를



<그림 14> 올리베띠 쇼룸의 전경

정면에서의 시각적 중첩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다. 이는 올리베띠 쇼룸의 특징적인 외관의 모습으로 인식되게 된다.<그림 14>

내부공간은 기존의 긴 직사각형의 공간형태를 유지한 채 오래된 설비구조와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내부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새로이 삽입한다. 새로운 컨텍스트들은 지역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형태들로써 올리베띠 쇼룸 안에 베네치아를 모두 설명해 놓았다고 할 만큼 은유적인 표현을 담은 공간으로의 변화를 보여준다. 한쪽으로 치우쳐진 입구를 형성하여 전이공간-전시공간의 흐름을 형성하고 내부공간의 특징적이며 상징적인 표현으로 2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계단을 구성하였다. 내부공간에 표현되어진 계단은 공간의 기능적 요소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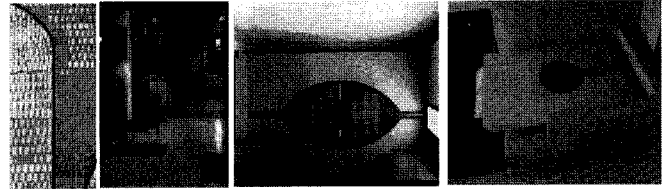
<그림 15> 부유함과 조형성이 강조되어 있는 계단

동시에 전통적인 계단의 형태가 아닌 부유하고 있는 듯한 리듬감 있는 구성으로 사람의 동선과 시선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는 내부공간의 중심을 형성하며 공간에서의 조형적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그림 15>

1층 전시공간의 바닥면은 동시대적 특성을 갖는 조형예술의 형태를 차용하여 표현하였으며 스카르파에게 영향을 주었던 끌레(P.Klee)의 그림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6>

스카르파는 기존공간에 존재하던 라디에이터기둥을 근대적 조형형태의 표피를 덧씌움으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조형물로 인지되어지게 한다. 스카르파의 이런 조형감각은 2층의 이중창에서도 나타나는데 외부의 기존 아취구조와 내부에 동양적 이미지의 격자형태의 문의 형태를 중첩시킴으로써 기능적 요소의 개구부에 조형성을 더하여 표현한다.<그림 17> 스카르파의 이런 조형적 표현은 재료의 마감부분, 조인트부분에 다양하고 디테일한 형태, 다양한 문의 개폐형태, 외부벽면에서 돋보이는 올리베띠 로고의 단순한 음각 글씨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공간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시각대상의 조형물로 인식하고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런 디테일한 조형형태가 공간을 구성함에 따라 조형적 공간구축이라는 스카르파만의 공간으로 재탄생되어진다. 올리베띠 쇼룸에서 보여지는 수공간의 표현은 베니스에서 보여지는 친근한 물의 존재를 이국적인 느낌의 수로의 형태와 물의 낙찰법을 보여줌으로써 전통적인 소재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공간에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그림 18>

올리베띠 쇼룸은 베니스의 특징적 요소들을 하나의 공간 안



<그림 16> 폴 끌레의 조형형태의 차용을 통한 바닥면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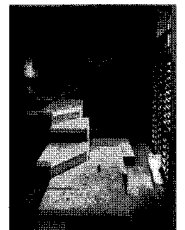
<그림 17> 내부의동양적 분위기를 형성시키는 격자형 창의 형태

<그림 18> 수공간의 모습

에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은유적 표현으로써 설명해 놓았는데 이는 결국 구축적 요소의 조형적 처리에서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고 이는 올리베띠 쇼룸의 대표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떠 있는 계단, 이중 파사드, 수공간, 1층의 바닥면의 모자이크의 표현, 등에서 스카르파가 지역적 특성을 디자인 모티브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건축을 재생 시킬 때 새로 삽입되어지는 요소들을 건축의 장소성과 연계된 컨텍스트의 삽입을 통하여 건축과 지역의 관계적 상황을 표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로써 스카르파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컨버전디자인의 대표적인 수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4) 스텐팔리아 재단(Fondazione Querini Stampalia, 1961/63, Venezia)

스텐팔리아 전시관은 19세기에 제시공 될 때 손상된 전시실과 서고 외관을 16세기 베니스 풍의 도시주택으로 복원시킨 작품이다. 건축물을 둘러싸고 있는 물은 범람으로 건축물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건축물에 있어 악조건임에는 분명하지만 스카르파는 물과 빛을 건축공간을 활성화 시켜주는 중요한 요소로 전환시킨다. 물을 막는 대신 끌어들이 수 있도록 디자인한 워터게이트와 끌어드린 물의 범람을 막기 위해 높은 바닥과 워터게이트부터 바닥까지 형성되어진 자유롭게 중첩된 계단, 좁은 통로, 방수로가 새겨진 바닥 등을 통해 스카르파는 물과 빛을 자연스럽게 공간내부로 유입시키며 워터게이트는 기능적, 형식적으로서 뿐만 아니라 조형적 형태가 강조되고 있다.⁷⁾ 워터게이트의 뚫려진 문으로 들어오는 물과 빛은 물성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을 바탕으로 입구공간에 매우 다양한 텍스트를 부여하여 감성적 느낌이 풍부한 공간을 창출하고 있다.<그림 19>



<그림 19> 워터게이트와 새로 형성된 계단의 모습

스카르파는 평면을 16세기의 주택의 보편적인 평면(건물안쪽으로 정원이 위치하는)으로 변화시키고 내부에 불필요한 기둥들을 없앤 후, 남아있는 라디에이터 기둥을 근대적 조형어휘로 재해석하여 공간의 중심적 역할을 해내는 오브제로써 공간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위치시킨다. 이 기둥은 입구로 진입하여 전시관으로 시선을 유도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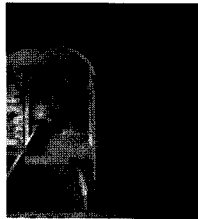


<그림 20> 근대적 조형어휘로 표현된 라디에이터 기둥

7)이소영, 까를로 스카르파 건축에 나타난 공간 구성과 그 표현방식에 관한 연구: 빛과 물의 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 석론, 2001, p.95

동시에 후정원에 존재하는 기존의 기둥과 유리 벽면을 통해 대비되어서 시간의 간극을 표현한다.<그림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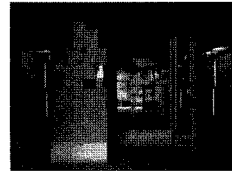
또한 워터게이트와 함께 입구 홀의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스까르파는 이 공간을 기존의 구조와 형태, 재료, 장식적 요소들과 근대적 어휘의 형태, 빛과 물이라는 새로운 컨텍스트의 삽입 등이 혼용적 표현으로 이질적인 느낌으로 주는 대비가 아닌 레이어의 겹침처럼 시간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융화되어 컨버전 되는 공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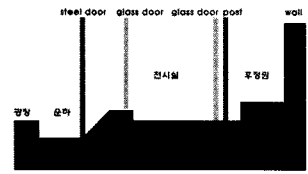
<그림 21> 기존벽에 덧붙여진 대리석 패널, 해자의 변용

서만 표현되는 독창적인 공간을 연출한다. 스까르파는 부분을 남겨 신·구의 조화를 꾀하였던 수법을 기존의 구조(벽)위에 대리석 패널을 부분 덧붙임으로 응용하게 되는데 방식에 있어 벽에 틈이 없는 완벽한 덧붙임이라고 하기보다는 벽과 패널 사이에 의도적인 틈을 형성시켜 그 틈으로 기존의 벽돌구조의 모습을 노출하여 과거와 현재를 자연스럽게 적층시킨다. 또한 스까르파는 물성을 초월한 다양한 재료사용법을 구사하여 전통적으로 쓰던 재료를 현대적인 형태로 표현하여 그 의미를 함축하여 공간에 보여준다. 패널 대리석역시 과거 외부에 쌓아올리는 적층법으로만 사용하였던 석재를 패널로 변화시켜 내부의 벽면에 붙이는 방법으로 재료적 구축방법을 달리한다. 스까르파는 외부의 환경적 요소를 내부로 적극적으로 끌어드려 내부의 공간 요소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지역적 특징을 디자인 모티브로 활용한 디자인을 공간에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입구에서 전시관으로 진입하는 통로의 형태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공간은 바다의 기존 벽으로부터 떨어져서 물위에 떠 있는 해자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물의 범람으로부터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베니스의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모티브로서 해자의 변용을 통해 과거로부터 존재해왔던 구조사이에 끼어 넣어진 새롭고 독립적인 건축 어휘로 공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입구의 모자이크 바닥의 경우는 조형예술의 영향으로 삽입된 컨텍스트이며 이러한 표현은 장식적인 의미와 함께 공간에 이질적인 컨텍스트를 삽입하므로 공간의 또 다른 이미지를 연출하게 한다. 스까르파는 이러한 표현을 위하여 예술형식의 도용이라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그림 21>

전시공간의 내부 벽면은 투명한 재료의 사용을 통한 입구홀과 전시관 후정원에 이르는 공간의 경계 표현을 함으로서 공간의 확장을 꾀한다. 벽이 아닌 층화를 통한 공간의 분절을 이루면서 후정원의 모습은 전시관의 한쪽 벽면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재료의 투명성은 공간과 공간의 연계뿐 아니라 컨버전 공간에서의 현재와 과거의 모습을 중첩시킴으로써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환상적 이미지를 살려주는 재료로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그림 22, 23>



<그림 22> 입구에서 바라온 전시관 전시관 입구-전시관-후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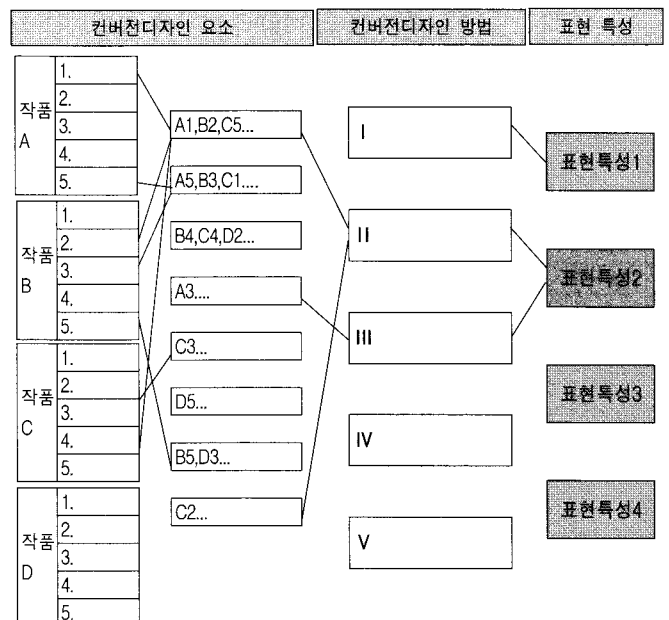
<그림 23> 유리벽을 통한 내·외부의 일체화

평면의 복원으로 새롭게 구성되어진 후정원은 전통적인 베니스 정원이지만 상징적 의미를 담은 채 표현은 지극히 동양적인 분위기를 나타냄으로써 전통의 또 다른 해석을 통한 공간을 보여준다. 수목, 파고라, 수반, 생 울타리, 석등의 요소들은 그들의 역사로부터 기인한 것은 틀림없으나 담장으로 둘러싸인 정원을 하나의 경관으로 승화시킨 방법은 일본의 정원과 흡사하면서도 물길이나 떨어지는 낙차의 방법, 석수(돌짐승)의 위치 등은 한국의 전통정원에서 볼 수 있는 분위기와도 흡사하다.⁸⁾ 또한 내부에서 보여 지는 정원의 녹담은 벽면과 같은 기능을 함과 동시에 외부의 자연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내부로 끌어들이어 관람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공간요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스까르파는 스텝팔리아 재단을 통해 전통과 지역적인 특성을 컨버전 공간 안에 현대적인 재료와 형태로의 변화를 통해 전통을 함축한 새로운 공간의 재현을 표현하였다. 베네치아의 물, 햇빛, 등 외부환경과 건축과의 조화를 디자인으로 승화시키고 기존공간의 전통성을 유지하면서 표현에 있어서는 근대적 조형예술의 삽입이나 이국적인 표현기법을 보여줌으로써 상징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시간의 흐름을 수용하는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

3.2. 까를로 스까르파 미술관 건축에서 나타나는 컨버전디자인의 수법과 표현특성의 도식화

<표 2> 컨버전디자인 방법의 유형화 과정



8) 편집부 역, 빛과 재료의 마술사, 콘크리트의 시인, Plus, 8908, No-99

전절에서 분석한 작품들로부터 도출한 컨버전디자인 방법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그 표현특성을 정리한 과정은 <표 2>와 같다.

콜라주(collage)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붙여서 구성하는 회화 기법으로 스카르파의 컨버전 공간에 있어서 콜라주는 기존의

<표 3> 까를로 스카르파의 미술관 건축에 나타나는 컨버전디자인 수법과 표현특성

작품명				컨버전디자인 요소	컨버전디자인 방법	표현특성	
A	B	C	D				
●	●	●	●	내부 아취형태의 개구부 + 격자 형태 문의 병치	기존 내부공간의 형태보존 + 근대적 조형어휘의 삽입에 의한 병치	콜라주 기법을 통한 신·구의 병치	신·구 건축요소의 중첩과 혼용을 통한 시간적 연속성의 표현
●	●		내부 아취구조 + 새로 삽입되는 스크린벽의 병치				
		●	기존의 기둥 + 근대적 조형형태의 기둥의 병치				
●			보강되는 구조체(근대적 재료)+기존 구조체의 의도적 노출, 병치	신·구의 형태가 혼합된 콜라주 형식의 입면	재료와 구조의 단편적 조합을 통한 신, 구의 조화	신·구 창 형태의 적층	틈이 존재하는 중첩을 통한 신·구의 대비
●	●		기존 파사드의 개구부 + 기하학적 형태의 개구부의 비대칭적 나열				
●	●		천정 구조체의 노출 +벽, 바닥의 새로운 재료로의 피복				
	●		기존 구조체의 노출, 새로운 구조체의 삽입	기존 구조의 의도적 노출, 새로 피복된 재료의 혼합	기존 창의 형태 + 새로운 창의 형태의 적층	틈이 보이는 부분 덧붙임을 통한 병치	기존 구조의 의도적 노출, 새로 피복된 재료의 혼합
●	●		기존 창의 형태 + 새로운 창의 형태의 적층				
●	●		고전의장장식 + 새로운 창 형태의 적층				
			기존 구조위의 부분 덧붙임을 통한 병치	기존 구조위의 부분 덧붙임을 통한 병치	기존 구조위의 부분 덧붙임을 통한 병치	기존 구조위의 부분 덧붙임을 통한 병치	기존 구조위의 부분 덧붙임을 통한 병치
●	●		기존구조위의 덧바름 ->기하학적 형태로의 부분절개				
●	●		시대별 적층되어 있는 재료의 부분적 노출을 위한 피복면의 부분 벗겨냄				
●	●		기존 내부의 벽면 + 원색의 전시 벽의 중첩	이중벽을 통한 재료의 색채와 질감의 대비	베네치아 물의 특성을 표현한 수공간 도입(순환과 긴장감)	지역적 모티브의 응용	지역성의 조형적 의미표현에 의한 역사성의 재현
		●	위터게이트를 통한 내부로의 물과 빛의 유입				
●		●	정원안의 수 공간 형성->정적인 수				
		●	내부공간에의 수 공간 형성->정적인 수	해자의 현대적 변용	도시특성의 은유적 표현	예술형식의 구축요소로의 차용	구축적 요소->오브제로의 연출
●	●		벽과 바닥, 벽과 천정의 분리				
●	●		해자형태->공간형태로의 응용				
●	●		베니스의 부유함->떠 있는 계단	도시특성의 은유적 표현	회화의 구성->공간표현으로의 전환	기능요소->조형물로의 숨김	구축적 요소의 조형물로의 표현
		●	수로의 미로형태도입->베니스의 도시구조				
●			전통적 건축형태->비대칭적 입면, 공간의 구성				
●			플라스터->혼합 농도의 변화, 뿔칠의 강도에 따른 질감과 색채의 다양화	전통적 재료->재료속성의 응용을 통한 현대적 표현	회화의 구성->공간표현으로의 전환	기능요소->조형물로의 숨김	구축적 요소의 조형물로의 표현
●			플라스터의 벗겨지는 속성을 통한 신·구 재료의 대비표현				
		●	적층하여 사용하던 석재->패널로의 변형->입면에 접착				
		●	전통적 목재가공방법의 응용->석재와 황동을 통해 표현	회화의 구성->공간표현으로의 전환	기능요소->조형물로의 숨김	구축적 요소의 조형물로의 표현	외부환경의 유입을 통한 공간연출
●	●		몬드리안 구성의 활용->창, 벽면의 구성				
	●		끌레의 조형언어의 활용->바닥면, 입면의 구성				
	●	●	레디메이터 기둥->근대조형언어를 표현한 조형물로의 변화	기존 장식요소의 제거->재료의 조합을 통한 장식적 표현	투명성에 의한 공간의 확장	빛의 유입을 통한 공간연출	외부환경의 유입을 통한 공간연출
●	●		계단, 기둥의 조형적 표현				
●	●		막힌 개구부+전시물의 배치를 통한 병치				
	●	●	문 형태의 조형적 표현	비 기능적 순회동선계획을 통한 내·외부의 합일	투명성에 의한 공간의 확장	빛의 유입을 통한 공간연출	외부환경의 유입을 통한 공간연출
●	●		재료의 분리적 조합에 의한 윤곽라인의 형성->비례적 미의 표현				
●	●		바닥의 페이빙 설치				
●	●		외부공간의 전시물 배치	비 기능적 순회동선계획을 통한 내·외부의 합일	투명성에 의한 공간의 확장	빛의 유입을 통한 공간연출	외부환경의 유입을 통한 공간연출
●			내부공간->아케이드->외부계단->아케이드->내부공간으로 이어지는 순회동선				
●			미로식 순회동선을 이용한 건축의 전시물화				
		●	입구-전시관-정원의 일체화	투명성에 의한 공간의 확장	빛의 유입을 통한 공간연출	외부환경의 유입을 통한 공간연출	관점의 전환을 통한 우연성의 연출
●	●		반 보이드 되는 문의 형태(격자형)				
●	●		내부로의 빛 확산을 유도하는 개구부의 형성				
	●		외부의 바닥면->내부로의 연장, 외부의 벽면->내부로의 연장	투명성에 의한 공간의 확장	빛의 유입을 통한 공간연출	외부환경의 유입을 통한 공간연출	관점의 전환을 통한 우연성의 연출
●	●		브리지 형성을 통한 건물과 건물, 광장과 건물의 연결				
●			기존내부공간->외부공간으로의 전환				
●			벽면의 부분절개->반 외부공간으로의 전환	투명성에 의한 공간의 확장	빛의 유입을 통한 공간연출	외부환경의 유입을 통한 공간연출	관점의 전환을 통한 우연성의 연출
			벽면의 부분절개->반 외부공간으로의 전환				

A-아바테리스 궁, B-까스텔베끼오 뮤지엄, C-올리베티 소름, D-스뎀팔리아 재단

4. 까를로 스카르파 미술관 건축에 나타나는 컨버전디자인의 수법과 특성

4.1. 신·구 건축요소의 중첩과 혼용을 통한 시간적 연속성의 표현

(1) 콜라주 기법을 통한 신·구의 병치

구조와 재료, 형태와 새로이 삽입되는 재료와 형태들의 단편들이 모여서 전체를 표현함을 의미한다. 카스텔베끼오 뮤지엄의 정면 파사드의 경우 중세시대부터 존재하던 고딕양식의 단편과, 새로이 삽입되어진 공간의 입면, 비대칭적 입면을 형성하기 위해 형성한 직각의 개구부, 기존의 재료를 의도적으로 노출시킨 흔적들을 한정된 공간 안에 나열시킨다. 스카르파는 여러 시기의

양식이 혼재하는 건축에 익숙한 지역적 특성을 자신의 건축적 표현 방법으로 받아들였고, 이런 건축배경은 컨버전 공간에 있어서 신·구 재료와 형태, 구조 등이 신·구에 관계없이 부분적으로 조합되어짐으로써 여러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을 하나의 입면, 공간을 형성시키는 방법으로 응용되었고 이는 경험자로 하여금 시간의 간극을 동시각적으로 느껴지게 하며 시간을 초월한 공간을 형성시킨다.

(2) 틈이 존재하는 중첩을 통한 신·구의 대비

스카르파 건축에 있어 '겹침'이란 틈이 존재하는 겹침으로 기존의 구조를 보존하면서 그 위에 새로운 외피를 부분적으로 덧씌움으로서 건축의 시간적 흐름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내부 구조를 계승하는 경우 내부 구조를 보존한 채 그 위에 새로운 외피를 덧씌우거나 덮어냄으로써 공간의 변화를 시도한다. 스카르파는 베네치아 전통적 구축방식인 이중입면을 변형하여 외형은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안쪽의 형태를 새로운 형태의 장을 중첩시켜 기능과 상징적 의미를 동시에 만족시킨다. 스카르파 건축에 있어서 겹침은 베네치아 건축에서 보여 지는 보수 과정에서의 재료, 형태의 겹침, 이중 파사드의 영향을 추측해 볼 수 있고 스카르파는 이런 재료와 형태의 중첩을 통해 시간의 연속성을 표현하는 수법으로 응용하여 표현하였다.

4.2. 지역성의 조형적 의미표현을 통한 역사성의 재현

(1) 지역적 모티브의 응용

스카르파에게 베네치아의 지역적 특성은 디자인의 모티브를 제공해주는 요소로써 베네치아의 부유함, 미로처럼 짜여진 도시구조, 도시를 엄매고 있는 물과 강렬한 빛 등은 컨버전 공간 안에서 상징적 의미를 담은 채 공간의 구축요소로써 재현되어진다. 이런 구축적 요소들은 지역과의 소통, 연계성을 건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으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스카르파의 컨버전 공간에서 보여 지는 계단은 베네치아 도시의 부유함을 상징하는 구축적 요소로 공간구성에 기능적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조형적 형태의 특이함으로 시각적으로도 강조되어 표현되어진다. 스카르파의 공간에서 수공간은 베네치아의 도시적 이미지를 상징하지만 상징적 의미와는 달리 표현은 지극히 정적이며 이국적인 형태를 보여주는데 스텝팔리아 후정원의 수공간은 정원을 가로지르는 수로에서 비대칭적 요소들이 만들어 내는 리듬과 수 공간을 이루고 있는 사각형의 샘, 둥근 콘크리트 수반, 사자 석상 등과 사각의 구리용기에 담긴 물과 파피루스가 정원을 마치 일본의 신비로운 정원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만들어내는데⁹⁾ 이는 동양적인 분위기를 자아냄과 동시에 전통적인 베니스식의 정원을 현대적으로 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스카르파는 재료사용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쓰여 오던 재료들을 사용하되 재료가 갖는 물성을 초월한 다양한 사용법으로 현대적 의미를 표현한다. 스카르파는 플라스틱, 대리석,

목재 등 전통적으로 사용해오던 재료를 콘크리트, 유리, 철재등과 함께 사용하여 플라스틱과 콘크리트 사용에 있어서 첨가물의 차이에 따른 질감, 색상, 채도의 변화 등을 차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독자적인 질감과 색의 표현효과를 공간에 연출한다. 석재의 경우 전통적으로 적층하여 사용하던 석재를 패널로 변형시켜 내부의 벽면마감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스카르파는 기존에 사용했던 재료의 구축법을 거부하고 자신의 수공예적 기질과 재료를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을 통하여 다양한 재료의 표현법으로 전통과 현대가 혼합되어진 컨버전 공간을 표현하고 있다.

(2) 예술형식의 구축요소로의 차용

스카르파의 조형예술에 관한 관심은 유리공예와 각종 오브제의 디자인을 통해 현실화되어졌다. 스카르파의 이런 예술적 관심은 컨버전 공간에 있어서 예술형식의 차용을 통한 공간구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공간에서 장식을 통한 미적구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구축적 요소의 형태를 조형예술의 형태의 차용을 통하여 표현함으로써 기존 공간 안에 근대적 조형미를 느끼는 새로운 경험을 부여한다. 스카르파의 공간에서 보여 지는 예술형태는 많은 영향을 받았던 몬드리안의 비례미와 폴 끌레의 구성회화로 몬드리안의 비례의 경우 카스텔베기오 뮤지엄의 내부장의 형태에 차용함으로써 고딕창과의 색다른 조화를 보여주었고 폴 끌레의 구성형태는 올리베띠 쇼룸의 바닥면에 사용된 유리타일을 통해서 그 공간연출의 효과를 볼 수 있다.

4.3. 조형적 공간구현에 의한 공간의 질적변화

(1) 구축적 요소의 오브제로의 전환과 연출

스카르파 건축에 있어서 구축에 필요한 기능과 장식에 필요한 조형의 분리는 없다. 기능과 조형은 의미의 차이 없이 하나의 전시공간을 이루는 부분이고 이 모두는 세심한 스카르파의 손에 의해 작품화 된다. 스카르파의 이런 조형적 표현은 기존공간에 존재하는 구축적 요소를 조형물로 전환시킨다거나 새로 삽입되어지는 구축적 요소들의 조형성을 통해 표현되어지는데 스카르파는 기존 공간에서 기능을 위해 존재하는 요소를 조형성을 내포한 외피를 덧씌움으로써 기능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공간의 상징적 조형물로 동선을 유도하며 공간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요소로 전환된다.

스텝팔리아 재단 입구 홀에서 보여 졌던 기존의 라디에이터 기둥이 근대적 조형 형태로서 변화하여 기존의 공간 안에서 강한 임팩트를 형성하는 조형물로 변화되었다. 스카르파의 공간에서 이동의 역할을 담당하는 계단의 경우 기본적인 계단의 형태에서 벗어난 조형성이 강한 형태로 올리베띠 쇼룸의 계단은 시선을 잡아끄는 조형성으로 공간의 절대적 요소로 공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시선을 유도함과 동시에 동선을 암시함으로써 관람자를 자연스럽게 2층으로 유도한다. 스카르파의 공간에서 문은 다양한 개폐 시스템을 보여주며 문에 표현되어지는 섬세한 형태는 단순히 문이라는 기능적 역할만을 수행하는 구축물

9) Sergio Los, op, cit, No-110

이 아닌 조형물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암시한다. 계단이나 문의 형태, 문고리 장식의 디테일 등은 기존공간과 결합되어 수공예와 공간이 결합된 스카르파만의 공간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2) 피복의 패턴화를 통한 조형미의 표현

스카르파는 컨버전 공간에서 구조와 외피를 분리함으로써 외피만의 작업으로 기존의 공간과 다른 공간으로의 변화를 시도한다. 기존 내부의 장식적 요소들을 제거하면서 구조만을 보존한 채 바닥과 벽, 천정을 새롭게 피복하는 것으로 변화를 시도하는데 스카르파는 외피를 덧씌움에 있어 재료의 분리와 조합의 과정을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재료와 이음매사이의 경계적 상황을 비례와 재료의 대비를 통해 조형적 구축으로 승화시키는 특성을 보여준다. 공간에 있어 재료의 윤곽 만들기에 의한 경계적 상황의 표현은 재료의 질감, 색채, 광택의 성질 등으로 다양한 패턴을 만들어 내고 공간에서 패턴의 장식은 내부 공간의 장식적 미를 내포한 구축으로 바닥의 페이빙 패턴의 방향으로 경계가 없는 전시공간에서 영역을 암묵적으로 한정을 시켜주거나 쓰여 지는 재료의 대비적 성질로 동선의 방향을 유도하거나 지시하는 등 기능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스텝팔리아 재단의 입구 홀에서 보여 지는 벽의 패널의 비례적 조합과 바닥의 모자이크표현은 비례적 미와 동시에 바닥의 다양한 모자이크는 입구 홀을 한정시켜 줄과 동시에 밝고 다양한 색상으로 공간분위기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전시관 내부의 패턴은 트레버틴 대리석과 황동 띠로 이어지는 재료의 조합과 부분적으로 삽입되어진 조명 띠로 공간의 흐름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디테일한 재료의 마감과 비례적 표현으로 부분적이 장식 없는 공간에서 비례적 미를 표현하며 또한 패턴을 통해 전시물의 배치방향이 나 위치 등을 적절히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4.4. 관점의 전환을 통한 우연성의 연출

(1) 동선의 변화를 통한 내·외부의 합일

스카르파는 건축 작업 이외에 수많은 전시를 설계했는데 순회동선의 탈기능화와 다시점에서의 전시물 감상, 빛의 연출에 따른 전시물의 배치, 등은 컨버전 공간에서 외부공간과 연계되는 전시동선을 설계함으로써 내·외부의 합일을 통해 보여 졌다. 이는 내부공간만을 통한 전시 관람보다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전시외적인 환경을 전시계획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전시영역의 확대와 다양한 외부의 텍스처가 내부 공간 안으로 유입되어 짐으로써 건축가 자신이 예상치 못한 공간을 통한 감각적 경험과 건축물 자체가 전시물일 수 있는 컨버전 공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한 동선설계로 볼 수 있다.

아바페리스 궁은 중정을 중심으로 외부공간을 거쳐야만 다음 전시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내·외부교차 순환동선을 설계함으로써 궁이라는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건축물을 전체적으로 경험하면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관람자에게 제공하

고 있고 관람자들은 전시와 건축물 모두를 관람하면서 현재에서 과거를 경험하는 새로운 경험과 함께 전시감상을 하게 한다.

(2) 외부환경의 유입을 통한 공간연출

스카르파는 공간을 컨버전함에 있어 주변 환경과 기존 구축적 요소들을 디자인 요소로써 인지하고 구축적 요소의 기능전환과 주변 환경을 통해 건축물과의 관계를 재설정함으로써 공간의 새로운 모습을 연출해내었다. 개구부의 다양한 형태를 통한 내부로의 자연광과 물의 유입, 공간의 치환과 투명한 성질을 가진 재료의 사용 등을 통해 외부환경을 내부로 끌어드렸다.

카스텔베기오 뮤지엄의 간그란데 조각상부분의 경우 구축적 시기와 성격이 다른 두 개동의 합일을 위해 내부 공간의 부분을 외부로 치환시키면서 시간의 간극으로 인한 두 공간의 충돌을 중화시켜주면서 두 건물을 통합시키는 공간으로 재구성되어 졌고 스카르파는 이 공간을 신·구의 단편들이 모여인 공간으로써 다양한 각도에서 감상할 수 있는 간그란데 상을 배치함으로써 기존의 내부공간으로만 기능을 하던 공간이 오히려 건물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전환되어 시선의 유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적 상황이 연출되는 공간으로 변모시켰다. 스텝팔리아 재단에서 보여지는 입구 홀부터 후 정원까지의 투영은 유리라는 투명성을 가진 재료를 벽체로 사용함으로써 후정원의 녹담은 전시관의 한 벽면의 역할을 담당하며 계절마다 혹은 날씨마다 바뀌는 이미지벽체로써 역할을 하게 되었고 전시공간자체가 외부 환경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공간으로 변화되었다. 이는 건축물과 자연과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대에 있어서 새롭게 요구되어지는 공공건축으로서의 미술관의 다양한 역할변화에 따라 도시가 갖는 장소성의 보존과 유지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역사적 건축물의 재생과 재활용 방법으로서의 컨버전디자인적 접근에 주목하였다. 미술관 건축에서 보이는 컨버전디자인의 수법과 특성을 미술관 건축의 재생으로서 자신의 건축을 전 세계에 알린 이탈리아의 건축가 까를로 스카르파의 작품을 중심으로 분석, 고찰하여 도출하였다. 스카르파의 미술관 건축의 분석을 통해 얻어진 컨버전 디자인 수법과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신·구 건축요소의 중첩과 혼용을 통한 시간적 연속성의 표현

베네치아의 기후와 지역성에 의해 형성되어진 이 지역 특유의 건축 양식의 혼용과 적용에 의한 표현은 스카르파에게 있어 부분적인 조합을 통한 전체의 완성이라는 구성방법으로서 신·구의 건축적 요소들의 상호 중첩을 통하여 시간의 적층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첩된 건축 요소들은 관람자의 시각적 지각을 통하여 시간의 연속성을 지각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스카르파의 컨버전디자인 수법을 보면 기존 건축의 흔적들을 부분

적으로 남기면서 새로운 재료를 덧붙이거나 전혀 새로운 재료로 입면을 피복한 뒤 부분적으로 피복을 절개하여 기존의 재료를 노출시키는 덜어내기 방법을 통한 신·구 요소들의 중첩을 표현해낸다. 또한 신·구의 재료와 형태들의 단편들이 입면이나 공간을 구성하여 신·구의 중첩과 혼용적인 대비를 통한 공간과 시간의 연속성을 표현하고 있다. 건축을 미완의 구축으로 보았던 스카르파는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건축물을 인식하였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기체적 특성을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스카르파의 신·구의 중첩과 혼용적 조합에 의한 디자인 수법은 기존의 건축이 갖는 지형위에 새로운 건축적 요소를 부가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컨버전디자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역성의 조형적 의미표현에 의한 역사성의 재현

스카르파의 건축에 있어 '전통'과 '지역'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매개적 요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베네치아 지역이 갖는 물과 도시, 건축의 관계, 미로형태의 도시구성 등은 그의 건축에서 계단이나 해자, 수로의 형태, 동선의 구성 등의 건축적 요소를 통해 재현되어지고 있다. 또한 근대적 조형성을 건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예술형식의 차용에 의한 공간구축의 미적표현을 이루어내고 있으며 전통적 재료의 물성을 초월한 다양한 사용법을 통해 기존재료의 응용을 통한 현대적인 표현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스카르파의 이러한 컨버전디자인의 수법은 건축의 배경이 되는 지역성의 함축적 의미 전환과 재해석에 의해 다양한 조형적 표현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건축의 상징화된 구축적 요소로 역사성을 재현하고 있다.

(3) 조형적 공간의 구현에 의한 공간의 질적 변화

스카르파의 수공예에 관한 관심은 공간의 컨버전에 있어서 건축공간을 전시물을 보관하는 장소로서의 기능적 역할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공간과 전시물과의 완벽한 조화, 삽입되어 지는 컨텍스트의 조형화, 표피의 다양한 기하학적 패턴으로 기능을 담당하는 건축요소들을 근대조형어휘로 재구성하여 기존 공간 안에 하나의 오브제화, 표피의 다양한 패턴구사를 통한 조형미를 표현함으로써 전시물과 전시공간의 조형화로 이어졌다. 스카르파에게 있어 건축의 기능과 장식은 분리되지 않는다. 그의 공간에서 보여 지는 계단과 문의 형태, 재료 이음매의 디테일한 표현과 조형미는 기존 공간의 구조와 결합되어 직물을 짜 좋은 듯 조화를 이루며 공간을 구성하는데 이런 조형적 공간의 형성은 스카르파의 장인정신의 존중과 이의 현대화의 표현으로 공간을 섬세하게 다루는 스카르파의 건축사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현특성이 되었고 이런 특성이 컨버전 공간 안에서 기존의 구축적 요소와 장식적 요소의 경계의 틀을 없애는 역할을 한다.

(4) 관점의 전환을 통한 유연성의 연출

스카르파는 기존의 건축공간에서 구축적 의미를 갖지는 않으나 공간의 구성에 있어 요소들의 활성화를 통해 기존의 공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전환하여 공간에서 연출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적 상황들을 연출한다. 스카르파에게 있어 외부의 환경적 조건은 내부와의 다양한 관계적 상황을 만들어 내었고 이러한 외부적 환경조건들의 내부로의 적극적 유입은 의도하였던 결과 이상의 공간적 상황을 만들어 내었다. 내·외부를 넘나드는 동선의 설계, 공간의 치환을 통한 외부공간과 전시공간과의 연계, 개구부의 다양한 연출을 통한 빛의 유입, 투명한 재료를 이용한 공간의 확장 등을 통해 연출되어진 스카르파의 건축공간은 건축가가 응용할 수 있는 소스들을 기존 건물의 조건적 상황 속에서 발견하여 새로운 가치를 부여함으로 형성되어졌다. 이것은 신·구의 관계에 대한 관점의 전환에 의해 새로운 건축적 가치를 창출해 내는 컨버전디자인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컨버전디자인을 통한 건축의 재생은 현대 도시가 안고 있는 장소성 상실의 문제와 환경의 보존 자원의 절약 등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건축방법론이라 생각되어지며 특히 도심의 오래된 역사적 건축물을 미술관으로 전용시키는 작업은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의 보존과 재생에 의한 건축적 장소성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의 건축의 재생, 재활용의 역사가 길지 않은 만큼 외국의 다양한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컨버전디자인의 방법론을 찾아내고 구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 다루어진 까를로 스카르파의 컨버전디자인 수법과 특성의 정리는 차후의 한국형 컨버전디자인의 구축을 위한 기초적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1. Albertini B. Bagno S. Carlo Scarpa, architecture in detail, MIT press, 1989
2. Los S. Carlo Scarpa, TASCHEN, 1994
3. Murphy R, Querini Stampalia Foundation, PHAIDON, 1993
4. Dal Co F. Mazzariol G. Carlo The complete works Rizzoli, 1984
5. Murphy R. Carlo Scarpa & Casrelvecchio. Butterworth Architecture, 1990
6. Frascari M., "tell the tale detail", Theorizing a new agenda for architecture, Nesbitt 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6
7. A+U 건축과 도시: 까를로 스카르파, 프란체스코 달 코, 태담문화사, 1988
8. 정태승, 까를로 스카르파의 작품에 표현된 건축구성방식과 표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권 11호, 통권 109호, 1997.01
9. 노정은·박찬일, 일본에서의 근대건축물의 재생과 활용을 위한 컨버전 디자인수법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6권 2호, 통권61호, 2007.04
10. 배상수, 까를로 스카르파건축의 기하학적인 형태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권 4호, 통권 109호, 1998.04
11. 김인수, 도시의 재생과 문화공간 조성, 한국박물관건축학회논문집, 통권 제8호
12. 김문환, 도시재생과 환경미학 그리고 박물관, 한국박물관학회논문집, 통권 제8호
13. 우경국, 까를로 스카르파: 베니스에서 파리까지, 건축과 환경, 9111
14. 필립부 역, 빛과 재료의 미술사, 콘크리트의 시인, Plus, 8908
15. 이연경, 새로운 세기, 새로운 미술관, 월간 건축문화, 2005.07

<접수 : 2007. 12. 31>